논어 15편 위령공 19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。」

독음 · 자왈 군자질몰세이명불칭언

쉬운 풀이(요약) · 군자는 생을 마칠 때까지 칭송할 만한 이름을 남기지 못함을 걱정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 / 疾 병 질 질

沒 가라 앉을 몰 몰 / 世 세상 세 세 / 而 말이을 이 / 名 이름 명 명

不 아닐 불 / 稱 저울질할 칭 칭 / 焉 어찌 언 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